



욕망 꼬집는 마녀들의 놀이

세이레 수목극장 '세 마녀'
발칙하고 유쾌하게 변주
생활용품이 중세 소품으로
9월엔 '가정식 백반...' 공연

러닝타임 75분. 암전이 거의 없는 무대에서 이지선·박은주·김시혁 3명의 배우가 설 새 없이 대사를 이어 갔다. 맥베스, 뱅코우, 로스, 레이다 맥베스, 맥더프... 마녀들은 1인 다역을 소화하며 한바탕 소동극을 벌인다.

지난 20일 저녁 제주시 삼도1동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 창단 35주년 기념 공연으로 '세 마녀' (홍창수 작)가 소극장 무대에 올랐다. '세 마녀의 맥베스 이야기'란 부제가 달린 이 작품은 '세이레 수

목극장' 8월 레퍼토리다.

6년 전 배우 겸 연출자로 '세 마녀'에 참여했던 정민자 극단세이레 대표가 연출을 맡아 작품에 변화를 줬다. 배우들도 새 얼굴로 바뀌었다.

연출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조금 더 발칙하고 유쾌한 웃”을 입은 이번 공연에서는 시공간과 인물을 변주하는 ‘폴리드라마’ 형식으로 세 마녀의 놀이를 통해 권력 다름과 인간의 욕망을 그렸다. 이 과정에 자동차 좌석 등반이 댕개가 갑옷으로, 고무줄 바지는 긴 머리 여인으로 변신할 가발이 되는 등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 등이 중세 시대 역할 놀이에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다만 무대 세트와 소품까지 더해 엉뚱하고 코믹한 순간을 곳곳에 배치한 작품인데도 객석의 호응도



지난 20일 저녁 '세 마녀' 공연이 끝난 뒤 한 관객이 배우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진선희기자

가 낮은 편이었다. 정민자 연출자도 공연 뒤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배우들과 즐겁게 연습하며 만든 작품인데 생각보다 객석에서 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농담 섞인 말을 했다.

'세 마녀'는 26-27일 오후 7시30분 공연을 남겨뒀다. 공연 후엔 배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있다. 극단 측은 이 작품을 도와 유통이 가능한 콘텐츠로 키우

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9월에도 '세이레 수목극장' (9월 10·16·17·23일 오후 7시30분)은 계속된다. 이번엔 2018년 선보였던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밥' (김숙중 작)을 스틸러물로 재해석했다. 단 한 번도 가정식을 먹어 본 적 없는 만화가의 지독히도 외로운 이야기라고 했다. 연출 정민자, 출연 김시혁·강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 제주작가회의 '종남빛에 부는 기억의 바람' = 제주4·3 78주년 추념 '사월 문학제' 일환으로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 음악과 문학이 있는 작은 공연을 갖는다. 이달 30일 조천읍 와산리 종남마을. 참가 신청 070-8844-2525.

▷ 제주4·3평화재단·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의 별: 오늘의 시민을 비추다' = '큰별뽕' 최태성 역사 강사의 강연으로 꾸민다. 이달 29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연에 앞서 밴드 '웬즈데이 오프'가 1970년대 금지곡을 재해석한 공연을 펼친다.

▷ 제주4·3범국민위원회 '2026 4·3과 친구들 콘서트' = 정준희 미디어평론가와 변영주 영화감독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스타벅스와 배재고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논란 이후 4·3을 논한다. 이달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 제주학연구센터 '2026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 '제주학 아카이브의 미래를 묻다' 주제로 중장기 과제 발굴과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이달 27일 오후 2시30분 시리우스호텔.

장식물 아닌 애도·위로의 의미
김수범 개인전 '동자상의 노래'
갤러리 뱀다왓 약 한 달간 진행

제주 전통 석상인 '동자상(童子像)' 본연의 의미에 주목한 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이달 25일부터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뱀다왓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주 김수범 개인전 '동자상의 노래'다.

제주 동자상은 전통적으로 무덤 앞에 세워졌다. 하지만 매장 풍속



김수범의 '조상'. 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의 변화와 함께 정원 장식물이나 관광상품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작가는 이번에 종이 부조 형식의 동자상 오브제와 회화를 결합

해 제주의 아픈 역사 속에서 희생된 영혼과 이름 없이 스러져간 생명들을 위로하고 애도한다. 더불어 우리 곁의 모든 존재가 가진 고귀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끈다. 박물관 측은 “이번 '동자상의 노래' 연작은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역사적 시선이 못 생명을 향한 따뜻한 위로로 확장된 결과물”이라고 했다.

전시는 9월 20일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2026년 지역문화 상생·협력 전시 사업 중 하나다.

진선희기자

한소리여성합창단 정기 공연
'오름과 바당' 등 초연곡 2곡

여성4중창·어린이합창도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살아온 이야기도 다르지만 노래로 하나 되며 화음을 빚어 온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작지만 깊은 목소리로 제주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초연 곡 등을 들고 '제주, 다(다)'란 이름 아래 20번째 정기 연주회를 펼친다. 이달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

김훈석이 지휘하는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은 이날 전송이 곡 '제주의 하루', 안현순 곡 '오름과 바당'을 초연한다. 두 창작곡은 높고 낮음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제주를 담아냈다. 피아노 반주는 김민정.

음악회를 열고 닫는 무대에서는 '출발' '여행을 떠나요' '이 세상 살아간다 보면' 등 친숙한 노래를 준비했다. 고정서의 드림, 현지만의 기타 연주가 더해진다.

청년 음악인들의 무대도 만들었다.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이정하·홍수연·좌보나·김지수

가 여성4중창으로 강중훈 시에 선율을 얹은 안현순 곡 '주간병월'을 노래한다.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 (단장 김지혜, 지휘 김수연)도 특별 출연해 아이들의 해맑은 음성을 들려준다.

홍성숙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단장은 “두 곡의 창작곡과 마을들의 노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다양한 곡들을 들려드린다”며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내어주는 이곳, 아름다운 제주를 노래 속에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판 <514>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으덜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썬 제주어 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엔 혼 디서 '밥'에 대혼시 이악을 햏여보켜.”

밥

무소유가 날 초지후헛 쳐들어와실 때

좁시 주침거렷주마는

문제는 밥이랴다

무소유일 때 시상을 다 얻는덴 혼는 무소유의 역리를

단호히 말덴헛명

밥이엔 혼 건 소유의 철칙이엔

질롱 유의미헛 행동철헛으로 살아부렷다

서녕케 날 대 혼는 저술새백을 문지명

햏를을 쫓기 위헛 오몽이 시작 · 뎡다

햏 들어라는 시간을 문 나 결로 멩글곡

막춤내 밥을 얻어 뎡다

동지에서 서로 주둥이를 좇아대명 이실

식술덜 눈공저가 불러오곡

나 오몽은 질서정연햏고 트멍이 웃엿다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홍>
<계속>

제주어 풀이

*주침거렷주마는: 주침거렷지만 *불려오곡: 말혀오고
*밥이랴다: 밥이었다 *말덴헛명: 거부하며
*질롱: 가장 *살아부렷다: 살아버렸다
*서녕케: 짜느랄게 *대 혼는: 대하는
*저술새백을 문지명: 저술새백을 만지며 *나 오몽은: 내 행보는
*식술덜: 식구들 *눈공저가: 눈망울이
*질서정연햏고 트멍이 웃엿다: 질서정연햏고 틈이 없엿다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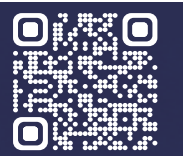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등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